

깨어보니 꿈이더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개역, 열왕기상 3:1~15]

‘권’ 력이나 부, 재산 이런 것들은 자다가 깨보면 아무 것도 없는 일장춘몽과 같다’고 하지요?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낙향해서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고대소설에도 ‘몽’ 자가 들어갑니다. 구운몽이죠. 등장인물이 아홉 명입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 ‘운’ 자에다가 깨어나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몽’ 자까지 붙인 소설입니다. 인생살이가 덧없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꿈에다 비유한 소설입니다. 제가 누려본 부귀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꿈이라면 참 허무한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꿈인 줄 알았더라면...

어릴 때 꾸었던 꿈 중에 가장 허무한 것이 돈을 많이 주는 꿈입니다. 참 많이 주웠어요. 그런데 깨고 나면 왜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게 꿈인 줄 알았으면 마음껏 쓰거나 갠 것이지... 꿈에서 돈을 모은 적은 있지만 마음껏 써보고 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꿈일 줄 알았으면 아끼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실컷 사먹는 건데... 어릴 때는 그런 꿈을 꾸더니 조금 크니까 변합니다. 허무하기는 똑같아요. 참 예쁜 여학생을 사귀었어요. 가슴이 두근반 새근반 좋았지요. 깨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고 깨는건데...

일장춘몽은 제게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고 나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 꿈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헛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헛된 꿈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꿈 한번만 잘 꾸면...’ 이 표현이 조금 바뀌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구절이 여기 있더군요.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딱 세글자로 ‘꿈 깨라’ 입니다. 꿈이란 게 그런 겁니다. 깨어나 보면 더 이상 허탈할 수 없습니다. 꿈 속에서 저축하고 아끼고... 아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고 나면 더 허탈한 겁니다.

깨어 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묘한 것은 솔로몬도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그 뒷 얘기가 다릅니다. 깨어보니 꿈이더

라. 그래서 허탈했더라? 그게 아니고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왔는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 많이 꾸고 깨어 보았더니 꿈이더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꿈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잘 껴서요? 아니면 꿈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잘 해서요?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반드시 전제로 깔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얻었던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 아이를 데려가셔도 그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다윗 때문이죠.

솔로몬이 왜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신앙, 아버지의 놀라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복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과연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일을 했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솔로몬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이 놀라운 복이 저절로 들어왔겠느냐는 애깁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다고 하는지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지키라고 한 법도를 솔로몬이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위하여 데려다가...'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했느냐?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여기 인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연이라는 것이 불교용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우연, 인연, 불운, 극락 등이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인연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인연'은 뜻이 약간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연이 아니고 혼인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혼인을 맺고 그 딸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한 구절은 1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비로 삼았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강성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와 결혼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점령한 나라에 딸을 줍니다. 그러면 딸이 그 나라에

가서 안방에서 통치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을 솔로몬 왕이 데려와서 비로 삼았는데 문맥을 보시면 바로가 통치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다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죠? 1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바로의 딸을 왕비로 데려와서 다윗성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왕비를 데려와서 거기에만 두었다는 것은 못 갈 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래도 바로의 딸인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말이야?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윗성에만 두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역대하 8장이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의 성과 다윗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있는 것은 가하나 바로의 딸이라도 다윗궁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궁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요 왕비이지만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제 아무리 왕비라도, 바로의 딸이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쉬운 일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를 위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나도 일천 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성전도 없고 다윗의 궁도 제대로 없었지만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번성했는지를 3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일이 일천 번제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흥왕해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일천 번제의 의미가 뭘니까? 조금 주의해서야 할 것은 1000이라는 것이 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린 짐승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일천번 드린 것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졌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융성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그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말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다고 쉽게 기억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점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솔로몬이 열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야의 반란을 물러가면서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하신 말씀에 보면 ‘너는 지혜로운 아이이고로...’라고 합니다. 너의 지혜를 총 동원해서 저 사람 저 사람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처치해야 한다. 그 당부를 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이이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번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던 말씀이 5절입니다. 그 5절에 대한 답변을 솔로몬이 9절에서 합니다. ‘누가 왕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6, 7, 8절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니 덜렁 뭘 주세요 하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라는 걸 먼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뭘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맞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음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 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실력없는 사람이 “저 잘 모르는데요.” 하는 것은 겸손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물러서면서 “졌습니다.”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싸울 힘이 있고 이길 능력이 있는데 “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득찬 사람이 “제가 뭐 압니까?” 이렇게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 질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나보다 더 능력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이 가능해 집니다.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7절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의 빼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 성, 즉 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란 말은 **‘다른 백성이나 저나 동일합니다’**는 뜻 입니다. 제가 특별히 나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나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8절 끝에,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백성이 많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왕의 자랑입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고 나라 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백성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자기 백성 이 많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자기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 셴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 할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이런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가 지혜로웠음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씀을 듣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기뻐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서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고(오래 사는 것), 재산도 구하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보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애초에 지혜로웠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증거는 또 하 나 있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 으로...’** 자세히 보면 다윗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 에 보면 주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 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부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즉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상급이 아니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떤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준 게 아니고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그저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 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누린 것이나 내가 누린 이것이 그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 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

하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꿈 한번 잘 꾸고, 하나님께 말 한번 잘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과 잘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 옳습니다.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두 군데나 나옵니다. 마 13:12절의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지혜마저 잃어버리게 되리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은 달란트 비유에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나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저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며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충성하지 않고 아끼고 있다가는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기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알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데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한번만 복 주시면 내가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만 하면 된다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더러 일을 열심히 하라는 구절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애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애김입니까 대충하라는 애김입니까? 이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회사일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일에 정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됩니까?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잘리지 않으려면 회사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요,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팽개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예배시간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며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지, 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리석거나 바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이미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집트 바로와 대등하게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미 튼튼

한 나라를 세워놓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는 것을 알고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솔로몬은 그만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되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게 꿈이거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어쨌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는 겁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이것은 허무하고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잠언을 남겼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와 시편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넘어가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저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고 합니다.

아니, ‘깨어보니 꿈이더라’ 했는데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꿈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일장춘몽이 아니라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는데도 그 꿈이 화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이 꿈은 솔로몬이 꾸려고 했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꿈을 꾸려고 노력한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일은 뭘니까? 꿈을 꾸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했는데도 결국은 현실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의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그런 대사를 열심히 읊조린 배우가 말은 역할이 뭐겠어요? 농땡이 역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늘 와서 하는 소리가 ‘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입니다. 이런 소리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 잘 되었겠어요?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느 코메디언이 ‘뭘 보여주겠다’고 평생 노래했는데 뭘 보여주고 갔어요? ‘좌우간 한번 와 보시라니깐요’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보여 주겠다 하면서도 평생 그 말만 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꿈 한번 잘 꾸면’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평생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준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가발전이거든요. 자기가 한 일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꿈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참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꿈을 꿈시다’ 이러면 일찍 일찍 가서 주무세요.

꿈을 잘 꾸려면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자기 전에 쓸데 없이 이것 저것 좀 많이 잠수세요. 그래야 꿈을 많이 꾸요. 잠이 모자란 사람은 꿈을 꿀 겨를이 없어요. 실컷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뒤척이고 하면 꿈을 많이 꾸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꾸 꿈은 일관성이 없어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끝날 때 보면 저기 가서 끝나 있거든요.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줄까 하시는데 잘못 대답하면 어찌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꾸는 꿈과 잠 실컷 자면서 게으르게 살다가 꾸는 꿈은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꾸는 꿈과 평소에 개꿈 용꿈 많이 꾸는 분의 꿈이 다르다는 건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개꿈도 좋고 용꿈도 좋고 돼지꿈도 좋겠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참으로 귀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꿈도 허무한 겁니다. 내 인생도 보잘 것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하

나눔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더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지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전에는 그러면 바보였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솔로몬이 지혜로웠음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있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지혜는 그 이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 된 지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진짜 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기 전에는 바보였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며 지혜로운 그가 더 큰 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진 꿈은 참으로 아름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꾸는 꿈은 그게 총천연색 꿈이라도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일장춘몽이라는 말에 왜 봄 춘자가 들어갔을까요?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나른해서 정신도 몽롱하고 정신도 제일 희미한 계절입니다. 몸도 나른하고 제 정신이 아닌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꾸는 꿈, 그게 춘몽이죠. 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고 말하면서 하필 봄날 나른한 시절에 꾸는 꿈이라...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꾸는 꿈은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허무한 꿈도 참으로 아름다운 현실이 됩니다. 꿈을 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꿈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좋은 희망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죠. 좋은 꿈을 가지는 것, 좋은 꿈을 가꾸는 것, 좋은 꿈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꿈보다 먼저입니다.

꿈보다 해몽? 아니, 꿈보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속담을 하나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 참 좋은 속담이죠?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은 좋은 꿈도 되고 나쁜 꿈도 된다는 말입니다. 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꿉시다. ‘꿈보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크는 아이들이 장차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굳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긴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꿈보다 해몽? 이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꿈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꿈을 꿈시다. 좋은 꿈을 어떻게 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꿈 좀 꾸어볼려고 잠 많이 자지 마십시오. 그래서 꾸는 꿈은 전부 개꿈입니다. 돼지꿈 꾸려고 벽을 온통 돼지 그림으로 바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혹시 돼지꿈을 꾸었다고 복권 사러 가지 마십시오. 설령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꿈입니다. 좋은 꿈 꿈시다.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꿈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도 그 꿈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